

장하디 순교자 피흘린 이땅에 신앙의 밑거름 되었다.



오셔서 성지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중앙기상대보다 더 정확합니다.'하여 탑승한 노년분과원들의 한바탕 웃음도 나왔다. 순교자 해미성지 주임 신부님(김경식, 미카엘)과 담당직원의 마중을 받으며 성지 동영상과 복음 강론에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죄의 사슬을 풀기가 어려워 계속 되풀이되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풀기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갈수 있다'. 말씀으로 미사참여를 마치고 중식 후 선배신앙들을 배교를 하면 살려준다는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살아 있는 생사람을 해미천 둠병이에다 처넣고 묻었던 그때 그 순교한 신앙심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는 5월16일(수) 순교자 해미성지를 73명 분과원이 참여하여 성지 미사와 순교한 옛 선배님들의 순교신앙심을 참배와 묵상을 하였다.

이날 출발 시 많은 비가 쏟아져 성지 외부 참배가 어려울 것 같아서나 본당주임신부님께서 출발 전 축복해 주시려 차내 승차하여 격려말씀으로 '오늘 여기는 비가 쏟아져도 본당 어르신들께서 모처럼 성지순례인 만큼 비가 그칠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비속에 관광버스는 성지에 임박하니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잔뜩 낀 약간 서늘한 날씨였다. 그때 관광버스 기사님께서 '오늘 출발 할 때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축복하러



각 고을에서 붙잡혀온 순교자들은 자리개 돌로 치고 생매장했던 곳을 우리는 십자길 14처를 묵상하면서 선조들의 신앙심과 우리들의 신앙고백은 무엇인가를 피와 살이 묻혀있는 둠병이 바깥을 돌며 지금도 들려올 듯 말 듯 하는 '예수마리아, 예수마리아' 소리를 깊게 묵상 하였다.



특히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73명과 수원 성모마리아 성당 레지오단원 57명을 위해 미카엘 신부님은 직접 해미읍성에 까지 오셔서 호야나무(회나무)에 선배들이 목을 달아 순교한 그때 뜨겁고 장렬했던 장면을 설명 해 주셨다.

순교신앙은 오직 "예수 마리아"란 짧은 단어 하나로 생과 사의 길목에서 신앙을 주장한 옛 선인들과 성경과 해설이 난무한 지금의 현실을 가지런히 묵상도 해 보았다.